



"음식은 한데 먹고 잠은 따로 자라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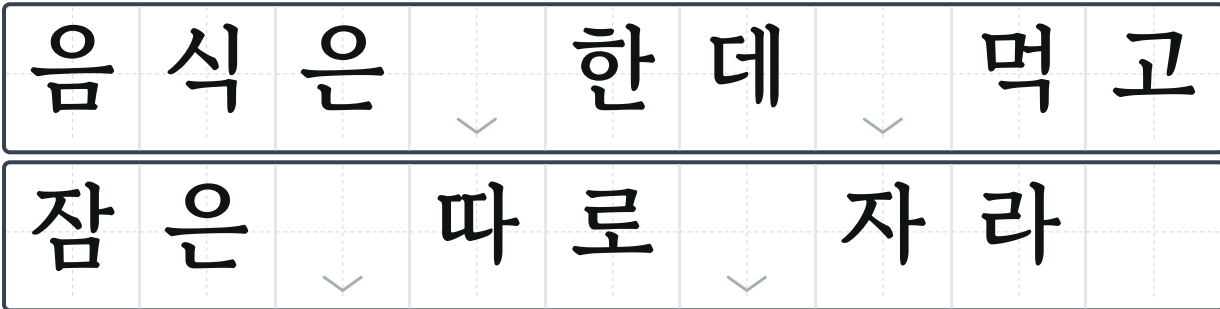
뜻: 음식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해야 좋은 일이 있고, 잠자리처럼 혼자 편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.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잘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구별 · 공동체 · 경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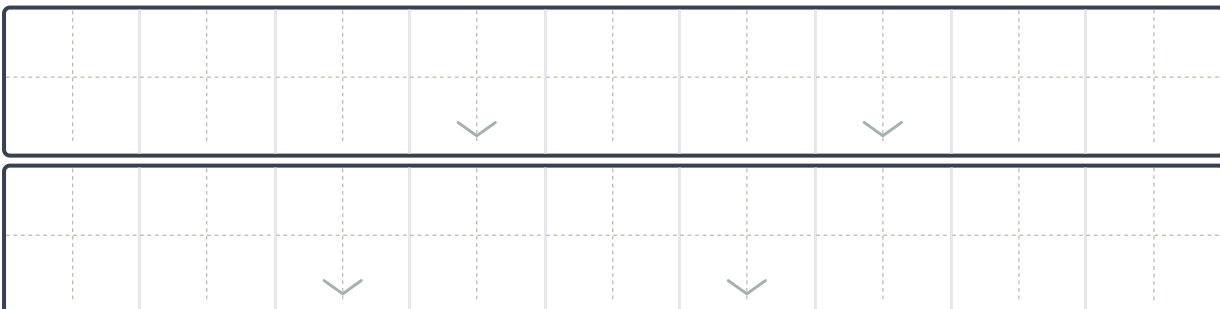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ㅅㅇ][ㅎㄷ][ㄹㄱ][ㅈㅇ][ㄸㄹ][ㅈㄹ]

웹에서 보기

